



"사내 못난 것은 대가리만 크고, 계집 못난 것은 젖통만 크다"

뜻: 옛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나쁘게 평가할 때 쓰던,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외오 · 편견 · 조롱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사	내	↘	못	난	↘	것	은								
대	가	리	만	↘	크	고	,	↘	계	집					
못	난	↘	것	은	↘	젖	통	만	↘	크	다				

2단계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사	내	↘	못	난	↘	것	은								
대	가	리	만	↘	크	고	,	↘	계	집					
못	난	↘	것	은	↘	젖	통	만	↘	크	다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내] [못난] [것은] [대가리만] [크고] [,] [계집] [못난] [것은] [젖통만] [크다]

웹에서 보기

